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5. 9. 25.(목) 14:00

○ 장　　소 : 구로구의회 6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14시 개의)

○간사 서송범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팀장 서송범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위촉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님 세 분께 정대근 의장님이 위촉장을 수여하시고 기념 촬영 후 의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참석 위원 소개 후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의 진행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이 모두 끝나면 금일 안건인 2025년도 공무국외출장계획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은 임기가 시작되는 2025년 8월 8일에 수여하려고 하였으나 오늘 수여해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성명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촉장 수여 시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수여)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이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가나다 순으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심사진행에 앞서 정대근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의장 정대근

존경하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구로구의회 정대근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시고 또 심사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구로구의회는 일본을 방문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서 지방의회 운영, 또 통합 돌봄, 평생 학습 및 지역 보건의 선진 제도를 살펴보고 또 구로구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책을 발굴하고 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사항을 고려하여 2025년도 6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충실히 준비하겠으며 귀국 즉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민에게 정책 반영으로 이어가도록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주민 신뢰에 걸맞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심사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듣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로구의회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 심사위원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의회 16명

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간사 서송범

이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경위원

안종태 교장선생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간사 서송범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해 주신 분이 없으므로 안종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동박수)

지금부터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태

아마 작년에도 뵀던 분이 있고 이제 올해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사실 제가 일이 조금 바빠가지고 위원장 하기가, 여기 심사위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또 아까 우리 의장님이 또 우신고등학교 저기다 보니까 간곡하게 또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랬었는데 또 여기 심사위원장도 또 본의 아니게 작년에 하셨던 분들에 의해서 아마 제일 연장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 분들이 위원장님을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건데 영광스럽게 저한테 연식이 좀 많다고 그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심사를 맡게 된 안종태 위원장입니다.

이미 소개는 제가 잠깐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바로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추천을 받겠습니다. 호선이죠?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인데요. 부위원장님은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쪽에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내년 되면 못 오실 것이고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이쪽에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부위원장님 나오시면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쪽에서 동의하셨으니까 이제 이쪽 세 분 중에서 추천을 받겠습니다.

○원금희위원

윤수찬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안종태

윤수찬 위원님,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윤수찬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일동박수)

우리 부위원장님 잠깐 또 말씀 하나 하시죠.

○윤수찬위원

먼저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로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의원님 열여섯 분 의원님 해외비교시찰, 선진 사례 비교 시찰에 주민 대표로서 이렇게 심의를 해준다는 것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지방자치가 30년 되면서 특히 지방의회는 34년 되면서 특히 행정의 부실한 거라든가 행정의 투명성을 보이고, 또 권익위에서 이렇게 권고 사항이 온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좋다 해서 민간 단체에 이렇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정말 좋은 제도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또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구로구 사랑을 해 줘서 참여해 주시고 또 심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은 지적하고 잘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종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전부 다 전원 참석하였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 심사의 건

○위원장 안종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서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구로구의회 의원을 대표하셔서 김철수 위원장님께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장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계획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대상지는 일본 도쿄, 오사카로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의원 12명, 직원 6명으로 총 18명이며, 출장여비는 총 4,304만 4,300원이고 차량임차료, 통역비, 기관방문 기념품, 열차료 등을 모두 합하면 5,534만 4,300원입니다.

구로구의회는 도쿄도의회·세타가야구 육아종합센터·오사카부립중앙도서관·히가시오사카 생협병원 기관방문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 통합돌봄, 평생학습, 지역보건의 선진 모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자 공무국외출장지를 일본 도쿄와 오사카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으로 구로구의회의 핵심 현안인 의정 운영 효율화, 보육복지 강화, 도서관 기반 평생교육 확대. 주민 건강증진과 직접 연결되는 현장 사례와 운영체계를 벤치마킹 하고자 합니다. 선진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로구 맞춤형 정책·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행정, 의회, 지역사회 협력의 통합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3일에 도쿄도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의원 12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본 지방의회 중 규모와 정책영향력이 가장 큰 도쿄도의회에서 의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조례 제정·예산 심의·도정 감시 등 선진 의정활동을 벤치마킹하여 구로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11월 14일에는 임신·출산·양육까지 One stop 생활 지원이 가능하고 저출산 대책 및 아동, 육아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거점 기관인 도쿄 세타가야구 저출산 어린이 육아종합센터를 방문하여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육아 정책지원, 지역 자원과 연계한 육아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에 오사카 부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디지털 서비스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벤치마킹해서 11개의 구로구립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 시민참여형 학습 프로그램 등에 반영하여 구립도서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히가시 오사카 생협병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에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구로구의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지원법 중 하나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3월에 제정되어 2026명 3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구로구의회는 주민참여형 협동조합 의료모델인 히가시 오사카 생협병원의 운영 방식 브리핑과 간담회를 통하여 병원, 지역포괄케어, 재택서비스 연계를 벤치마킹해 구로구형 통합돌봄 경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일정과 방문기관 정보는 배부

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공무원 여비 조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일비, 숙박비, 식비, 운임비를 산출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이 중 숙박비는 할인정액으로 상한액의 85%로 산정했고 일비는 1/2을 감액하여 산출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임기가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일본으로 국외공무출장을 떠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가면 외유성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히 남은 기간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일정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가 애초부터 주민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정책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지역의 현안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들도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의정 운영의 효율화, 보육 복지, 평생교육 확대, 주민 건강증진 등 이 모든 문제들은 선진국 지방자치들이 먼저 경험을 했고 또 극복해 온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본을 찾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는지 직접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책상 위에 보고서만으로는 결코 체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얻는 지혜는 어떤 문서보다도 더 생생하고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지금 의원들의 임기는 9개월 정도 남았지만 이번 출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선진 사례와 정책 아이디어는 우리 구민들에게 앞으로 9년, 90년을 내다보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실행 가능한 대안을 주민들과 행정에 제시해서 이번 출장이 단순한 여비 지출이 아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값진 밑거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 위원님들의 지혜로우신 판단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모든 의원들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출장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무국외출장 출장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5년 공무국외출장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태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수 운영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정책지원팀장님께서는 그 앞자리로…

위원님들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금희위원

민주당 의원님 네 분만 안 가시거든요. 이 분들은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운영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

대부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출장을 못 가시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같이 동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김지숙위원

그분들 예산 잡혀 있는 것은 불용처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

그거는 우리 정책지원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정책지원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 가시는 분들은 불용 처리로 해서 예산 안 쓰고 그냥 남아 있는 상태로 불용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난해부터 행안부에서 굉장히 그 예산 지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인적으로 직원분들이나 의원들한테 환수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잘 점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쿄 내 쓰레기 매립장 도시재생 사례랑 저희 항동 자원순환센터와 비교해서 정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보고서에 그 내용 해당 포함돼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지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태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

○송치경위원

제가 재위촉이기 때문에 작년 호주 시드니 때도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 오늘 회의가 있어서 작년 시드니 계획과 결과보고서를 제가 좀 보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회의에 임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기관 방문 사찰이 11군데예요. 같은 5박 7일이었고 여기는 5박 6일인데 지금 일정이 올해 도쿄 이쪽은 일정이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견학을 가다 보면 저도 뭐 경험은 있지만 보면 한 곳에 한 2시간,

길어야 3시간이면 충분히 견학이 되고 안 그러는 곳도 있지만 그런데 이번 일정을 보면 그냥 하루에 하나씩 되게 널널하게 일정을 잡으셨더라고요. 남는 시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볼 곳이 없었나,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요즘은 가장 저출산 문제와 기후 위기의 문제예요. 근데 보면 기후, 우리 구로구에서도 구청장님이 탄소 중립 도시 선포식을 이제 내일모레 하실 거고 한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진국에서는 대처하는지에 대한 견학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 시드니 견학한 것을 보면은 견학 보고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11곳을 갔는데 열 분 전부 똑같은 견학보고서가, 그 뒤에 공원이라든지 리턴앤언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곳이 자원순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다 견학 좋은 데를 갔다 오셨는데 그런 데에 대한 말씀도 하나도 없으시고 제가 찾아보니까 구로구는 그렇게 회수하는 데가 다섯 곳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견학 갔다 오셨으면 그런 반영이 돼서 의원님들이 "이거는 자원 순환, 기후 위기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거다"해서 정책의 반영이 그런 게 된 게 있는지 제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정책에 반영이 된 게 있나 말씀 좀 해 주시고 올해 이렇게 가셔서 저는 작년에, 신규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엄청난 지금 안 오신 분, 재위촉 안 되신 분들은 엄청난 논쟁을 많이 했어요. 가야 되느냐, 가서 정말 뭘 배워오느냐, 세금 낭비 아니냐, 라는 지적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개인의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아까 7개월 남으신 분이 뭐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갔다 오셔서 정말 구로구의 정책과 비교해 보고 벤치마킹할 거는 정말 벤치마킹이 되게끔 의원님들이 정말 변화를 좀 시켜주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우선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정이 한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선은 교통 시간이랑 식사 시간 감안하면 한 3~4시 정도에 일정이 보통 여행지, 가는 그런 기관이 한 3~4시 정도에 종료될 것 같은데 끝나면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그날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느낀 점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계획할 건지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어떤 일정이 있는 건 아직까지 특별히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정책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어제 새로 발령받고 오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우선 좀 자료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좀 자료를 좀 찾아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치경위원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탄소 중립도시 선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선진지 견학이니까 그런 게 포함됐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운영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금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예산 지급하고 관련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적 사항들을 아주 심하게 받은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따라서 다른 데는 무리수를 두는 의회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대로 하등의,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송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 지금 UN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출산 또 탄소 중립 또 그 외에도 예산이라든지 육아 또 그런 기타 중요한 핵심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현안 문제들은 많지만 이런 거를 모든 걸 다 방문하고 견학하고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 중심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 과제와 기관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종태

또, 위원님들!

○김지숙위원

제가 우리 송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 중에 하나 저도 듣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작년에 시찰했던 결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저는 또 추후에 질문 한두 가지 정도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방문한 곳이 11곳이었는데 다 의원님들이 같은 장소를 결과보고서를 낸 것 같아서 좀 다양한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오면 그거는 받기로 하고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당부 사항도 아닌 것이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작년에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은 이제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열띤 토론과 제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려점도 반영해서 작년에 호주를 잘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끝냈는데 끝나고 나서 의회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의회가 있잖아요. 초반에. 의회를 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때 하고 의회를 했는데 의회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의원님이 전부 다 안 가신다고 하셔서 신문 기사가 엄청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다 본인들이 물론 결국은 본인들이 안 가셔서 위약금을 다 본인들이 지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물론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심사를 이 심의위원회에서 OX,

찬반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에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신문 기사는 그렇게 났고 결론은 그분들 다 안 가시고 일부만 가셨단 말이에요.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런 과정에 저희가 했던 기관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오늘 심사에 오면서 사실 그런 것들에 조금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당부라기보다도 약간 오히려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대안, 대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물론 우리 팀장님 발령 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은 아마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아셨을 거니까 일단 저는 구민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은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결정된 사항에 아무리 정책상 당과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론 난 부분과 결정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가셔서 좋은 선사례를 보고 오셔서 구 의정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심의 위원으로서 약간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 위원으로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지금 또 참여를 다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표로.

○운영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

이게 조금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처음에 국외 출장을 갈 때는 그때는 저도 안 갔습니다. 저도 안 갔는데 제가 안 갔던 이유는 제가 그전에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저는 똑같은 곳을 두 번을 출장을 가가지고 이렇게 출장도 잠깐 간 게 아니라 한 달 이상씩 두 번을 갔기 때문에 거기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전에 미리 안 간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단 의원님들은 제각각 다 각기 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하고 안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안 가는 데는 또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정서적으로나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 맞지 않아서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지만 되는 일이 있는데 여럿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수결로 인해서 결정이 됐으면 이게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는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어떤 아주 미묘한 그런 안건 과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부딪힘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출장에서 네 분은 사전에, 어떤 부딪침이 있다든지 그래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못 간다고 연락을 미리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거는 앞서 한 번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종태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김지숙위원

방문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히가시 오사카 생협 병원에 가시는 것 관련해서 구로형 통합 돌봄에 관련돼서 진행하시잖아요. 작년에 통합 돌봄 관련해서 법 제정하겠다고 했고 작년 준비했고 올해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통합 돌봄에 관련된 게 정말 핫이슈로 지금 주제가 올라가 있고 저희 구로구도 지금 TF팀을 꾸리고 내년에 과를 신설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 그냥 제안이라기보다도 이런 부분들도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이 발표하셨을 때 통합 돌봄은 여러 가지 것들이 지역 안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통합적인 취약계층이나 돌봄을 할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병원이나 의료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같이 돌보고 서로 돌봄이 필요한 그런 방식의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협 병원에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과 그다음에 보건소, 약간 의료기관의 그런 추진 기관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돌봄을 받고자 하는 수혜자들이 지역으로 안으로 내려왔을 때 지역 안에서의 돌봄, 서로 돌봄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마을이나 지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서도 기업들이 통합 돌봄을 같이 지원하고 협력하려고 추진중에 있고 그런 추진체를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 안에서 그런 통합 돌봄이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또 한 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협 병원이나 기관을 통한 그런 통합 돌봄도 일단 보고 와야겠지만 지역 안에서, 마을 안에서의 서로 돌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그런 추진체계도 한 번 더 꼭지를 넣으셔서 가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님 조금 이해를 하셨을까요?

○운영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의회에서 주민참여형 협동조합 의료 모델을 이걸 잡은 건데 저희가 견학에서 어떤 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오는 거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강론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건 저희들이 보고 와서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세분화시키는 작업에서 물론 저희가 이번에 가서 말씀하신 거 지역에서의 어떤 서로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보고 와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구체적인 거는 세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저는 어제 문자로 이렇게 내용을 좀 받았거든요. 어제 다 받으신 것 같은데 공무여행을 저도 다녀왔어요. 교장 자격을 받으면서 다녀왔는데, 그때도 한 5박 6일 정도 근데 덴마크 쪽으로 갔다 굉장히 일정이 빡빡해서 정말 갔다 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정표를 딱 받고 '이게 다인가? '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송치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11군데를 갔다고 하셔서 '이건 아니겠지, 오늘 오면 좀 뭔가가 더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딱 하루에 한 군데씩, 저도 국외여행을 가거나 연수를 가면 적어도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은 적어도, 오후에 두 타임을 안 넣을 거면 이렇게 넣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버스도 대절하니까, 그렇죠? 그냥 각자 개인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하루에 하나씩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의원님들 간에 뭐 어떻게 보면 가서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작은 그림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저도 어떤 연수를 선택할 때 보면 '아, 이거는 좀 괜찮다' 프로그램이. 제가 가고 싶다 하는 게 있고 '아, 이건 그냥 이렇게 이 정도네'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씩만 하루에 오전도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가서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거는 갔다 와서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요. 저도 가서, 저는 오전에 하나 오후에 두 개 정도 가고 밤에도 저녁 때도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 그런 걸 갔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제가 어떤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공무원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획은 많이 좀 수정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우선 일정 관련으로는 위원님 의견 좀 수용해서 사실 저희가 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저희가 그냥 잠깐 사진만 찍고 오는 것도 사실은 거기 왜 갔냐 이런 또 비판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기관 방문을 하려고 하면 그 기관에 허가를 받는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건 좀 추후 반영해서 내실 있게 계획을 좀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한 번씩 가려면 주민들에게 이걸 검증을 받아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가 이제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4년에 우리가 네 번을 갈 수 있잖아요. 임기가 4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가면 두 번밖에 외국에는 못 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이 가면 세 번 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선진 사례는 매년 갔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부활해 가지고 지금 30년 됐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는 34년이 됐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산 건 지방자치 때문에 잘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서울시의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나 고속도로 노선도 선진 사례를 보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잘 된 사례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지방자치는 중요한 그런 선진 사례가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기술이다, 생각을 먼저 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일본에 가신 것은 우리나라보다 벌써 지방자치가 한 60년 앞서는 상태거든요. 거기는 지방자치 완전 지방자치다 우리는 반자치고요. 그 차이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주민의 생활도 우리하고는 너무 양상이 다르고 정치도 양상이 아주 달라요.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 보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하지만 일본의 정치 문화는 우리하고 너무 양상이 다르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민참여가 우리하고도 또 다르다는 거 그런 것이 저는 있다 생각을 해서 상당히 예산도 빡빡할 건데 잘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짠 것 같고 제가 일본을 공공기관에 한번 간 사례가 있어요. 일본은 한 보통은 두 달 전에는 한 달 전에 거기에 공공기관 간다고 하지 않으면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특히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요. 지방의회는 사전에 있지 않으면은 어떠한 일도 아마 외부에 유출을 안 하는 사례가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아무나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도 아마 방문 신청하면 받아주는데 거기는 최소한도 한 달 전에 해야 되는 거 있고, 특히 아마 이 여행사에서 이거 짜는 거 상당히 곤욕을 먹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일본 그 기관에 가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이 네 가지를 아마 방문을 한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도쿄 의회가 의원님들이 127명, 우리하고 거기는 중간 단위 의회인데 아주 광역 단위 역할입니다. 그거는 경기도하고 유사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분류를 보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 가서 상당히 많이 얻어올 겁니다. 제가 8월 달에 최근에 치바현, 치바현 의원들이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그 선거법에 대해서 종로에서 미팅을 했는데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져왔는데 그 얘기는 여기는 다른 부분이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회에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도 한때는 출산율이 높아졌는데 점점점 시장들에 따라서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복지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볼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천왕동 원금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천왕동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일본이 친환경 기후 변화에 또 앞서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의 역할과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벤치마킹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원순환센터의 역할이 지금 민원이 계속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일본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관에 참여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아마 자원순환센터 하는 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에게 갔다 온 것을 한번 상세하게 보고서를 쓰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서관 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은 도서관 많이 있고 일본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생협은 아마 우리가 지금 의료 보건소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는 구로구 같은 경우는 57% 정도 복지에 지금 지출이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결을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고령사회가 접어들었고 특히 일본 같은 고령 사회가 우리보다 20년 앞서 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건소에서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운영위원장한테 잠깐만 질문할게요. 한 가지만, 돈 부족하지 않습니까? 돈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던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일본 물가 올라가지고요.

○운영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

지금 윤수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기관 섭외하는데 여행사에서 어려움이 많아 많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 여행사하고 기타 에이전트를 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도 일본은 수십 번 갔다 왔지만 일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고 자기 속내를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기관들을 하나씩 이렇게 섭외를 하니까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관 섭외하기가 우리 여행사도 아니고 여행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하면서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니까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섭외를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보고 많이 배워오

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행사나 기타 에이전트를 끼지 말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려고 하면 아시아권에서 일본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일본하고 싱가포르 정도인데 물론 라오스나 미얀마 같은 데 가서도 '아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건 배워서 올 수 있겠지만 가서 제대로 배워오려면 갈 수 있는 그 국가가 많지 않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선진 비교 시찰을 가서 이거를 구에 접목한다든지 이런 거는 예산이나 정책 수립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래도 여기 견학 코스 중에서는 진짜 도쿄 내 쓰레기 매립지 도시재생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꼭 구정에, 이번에는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가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요즘 TF팀, 근데 지금 TF팀을 만들어야지 될 일이 그것뿐만 아니라 테스크포스팀 만들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시행하기에는 또 어렵죠. TF팀을 만들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그런데 사람을 채용한다는 건 굉장히 집행부 쪽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치경위원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열두 분 가시는데 직원이 5명이나 가야 되느냐, 이게 개인 돈도 아닌 세금으로 가는 건데 그런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공감이 가면서도 뭐 그래도 필요하니까 직원분들이 가시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정말 여러 군데를 가셔야 되고 가면은 맡은 역할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또 지역의 거리도 가깝고 그런데 직원분들이 6명으로 늘었어요. 5명일 때도 왜 이렇게 많이 가냐, 의회 직원분들이 이렇게 꼭 가야 되느냐, 라는 그래서 이렇게 뭘 준비를 하실 때는 전에 저희가 한 회의의 회의록을 좀 이렇게 보셔서 반영할 건 반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바뀌시다 보니까 그러는지 그때 그 얘기한 거는 그 해 그냥 끝, 묻어두고 다시 또 시작되고 다시 또 시작되고 이런 느

낌을 제가 받네요. 그래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족하지 않느냐, 예산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열두 분 의원님이 가시는데 직원분들이 여섯 분이나 수행을 하셔야 되는지, 역할이 여섯 분의 역할이 같이 이렇게 다른 분이 정말 다섯 분이 하면 안 되는 역할이라 여섯 분이 가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세요.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우선은 저희 직원들이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수행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정책지원관이라고 법을 만들거나 할 때 정책을 지원해 주는 저희 직원들인데요. 이분들도 사실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입법, 조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정책을 만들 때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행 직원은 사실 정책지원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났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정책 지원으로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의원들이 잘 정책적으로 자료 수집이나 이런 거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

지금 여기 구로구의회하고 의회 의정 운영하고 보육복지라든지 도서 기반 평생교육 확대라든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 우선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정책지원관들이나 직원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의원 아닐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의원들이 비용을 분담해 가지고 직원들도 같이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없애라, 그러니까 의원 비용을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이걸 하지 못하게 하고 하여튼 국민권익위에서 딱 자르니까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가는 것도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타이트하게 맞춰놓은 건데 의원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의원이 보는 관점하고 정책지원관이 보는 관점은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의원이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제도나 정책하고 정책지원관이 보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서로 다르게 만들어지는 걸로 인해서 정책지원관이 만들어낸 도출 결과물로 의원한테 지원을 해주고 의원은 또 자기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집행부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면서도 정책지원관이 보는 거하고 의원이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직원들이 간다고 하면 의원들하고 같이 가니까 직원들이 그러면 의원 보좌하러 가는 거냐,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

지 않거든요. 여기 같이 가는 정책지원관들은 이런 의원들한테 그런 거를 제안하기 위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시각으로 기관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어쩌면 의원들이 보는 것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6명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도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구민들을 위해서 밑바탕이 되어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

팀장님, 여기 2페이지 보니까 우리 저기 그 송치경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일리는 있어요. 수행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딱 2페이지 보니까 밑에는 직원으로 해놨는데 사무국 직원, 수행이라는 건 직원을 쓰든가 정책지원관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혹시 보고서에 그렇게 하십시오. “수행”하니까 의원님들 수행하는 걸로 보잖아요. 우리가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을 수행으로 하지 못하고 비서를 못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직원으로 보잖아요. 정책지원관도. 그래서 명칭도 똑같이 수행으로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이렇게 이것도 아마 혹시 작은 문서지만 이런 걸 하나로 사실 지역사회 주민들은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보니까 “수행”하니까 비서라고 보잖아요.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태

질문 없으십니까? 심의에 앞서서 이제 노파심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심의를 하시다가 보니까 아픈 기억이 살아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전에는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얘기조차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칼을 빼들고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아픈 기억은 머릿속에서 없애주시고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은 그 마음속에 있다 보면 아마 심의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직원분들 가시는 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위원장이라 아까 얘기도 못 했었는데 사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좀 많이 가셔가지고 거꾸로 그분들이 배워가지고 와야 여기 시정에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은 머릿속에 생각을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 기준에 대해서 관련된 규정 및 출장계획서 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전에 심사에 관계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식으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

대개 공직자들이 해외 공무출장을 간다고 하면 외유성 출장으로 보는 시각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굉장히 가난한 구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80% 이상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구정 자체가 돌아가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렇게 어렵게 가는 만큼 우리 의원들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출장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좀 지혜롭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경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는데요. 아까 제 의견도 그렇고 이승우 위원 의견도 출장에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너무 적어서 의견을 냈더니 팀장님께서 조정하시겠다, 더 넣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뒤에 나중에 뭐뭐가 추가로 견학이나 들어간 것을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심의를 하고 그냥 맡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태

심의는 지금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바빠가지고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시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심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부분도.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은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조건부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내는 방식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조건부로.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조건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또 다시 수정해 가지고 또 한 번 심의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조건부로 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수정한 것을 가지고 다음에 또 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너무 바쁘신데 저도 사실 엄청 바빠가지고.

○윤수찬위원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11월이죠? 기관방문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관광도 하나의 지방자치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의 예산을 보니까 관광이 빠졌어요. 우리 서울은 종로구하고 용산구 외에는 관광의 수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분권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과학 분야 이런 분야도 빠져 있더라고요. 앞

으로 지방의회가 예산권 독립도 필요하고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일본에 가면 좋은 역할이다, 하고 제가 지방의회 전공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지방의회하고 일본 의회하고 연계를 많이 해줬어요. 해준 이유가 뭐냐하면 거기는 지방의회가 완전자치예요. 지방자치가 잘된 자치예요. 우리는 반자치예요.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7위예요. 국가나 서울시에서 거의 얻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천구가 불과 5년 전에만 해도 우리보다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뭐냐 하면 금천구는 디지털단지가 우리하고 일자리가 두 배입니다. 그런 역할이고 대기업이 와 있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문화 부분도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건부로 심의위원님들도 시간이 없고 해서 사무국에 일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송치경위원

자꾸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말하자면 이 심의위원회와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민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대로 통과를 시킨다거나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널널하다, 출장이. 시간이 하루에 3시간씩만 출장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2박 3일로 가든지 3박 4일로 가면 되는 걸 5박 6일을 잡아놓고 이렇게 널널한 출장을 잡았는데 이거를 저희가 통과를 시켜 줄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팀장님께서 보완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보완된 거를 보고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1월이죠?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11월 12일부터 17일입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예약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아직 예약 안 했습니다. 심의회 통과가 되고 이제 모든 게 확정되면 그때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럼 기관을 몇 군데 더 첨부할 수 있어요? 오후에 첨부할 거 아니에요? 시간적인

거는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시간표는 안 정해놨잖아요.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우선 근데 기관 방문이 하루에 3시간 사실 넘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처럼 저희가 한 군데를 우선 기본적으로 방문을 하고 추가적으로 한 군데를 급하게 계획을 해서 한번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

근데 지금 이전까지의 공무국외출장 나가는 거 하고 달리 여행사라든지 에이전트가 전혀 없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어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추가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저도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이걸 하는 거를 보면서 보고를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일본어는 안 되지 기관을 섭외해야 되는데, 여행사 끼고 하면 편하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편했죠. 그랬는데 그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을 많이는 추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수찬위원

일본이 권위적이라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사실 어떤 기관 공식 방문은 사실 지금 새롭게 섭외를 해서 간담회를 갖거나 이거는 사실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한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저도 한 가지 의견드릴게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저희 학교도 선생님들이 방학 때마다 해외에 나가서 교육자료도 찾고 그러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나가요. 항공권 뜨면. 그래서 가서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기관 방문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기관이 아니어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일본은 되게 우리보다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공원을 하나 가더라도 거기서 보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공원에 있는 돌 하나, 발을 딛는 돌 하나 하나 또는 휴지통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그런 거라도 진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구 단위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큰 정책을 어떻게 국가 단위에서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공원에 갔을 때, 우리 구에 있는 도서관에 갔을 때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우리 구가 이렇구나, 구로구가 이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걸 구로구에서 못 느끼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

본에 가서 정말 거기서 그 사람들 되게 세심하게 물건 하나하나 정말 굉장히 조직적으로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정책 보고서만 잘 쓰면 그다음 분이 그걸 보고서라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렵다, 힘들다, 물론 어렵고 힘들죠. 근데 저도 공무원이고,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떤 거 기획 하나 할 때 예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노력을 들여서 이제 계속 검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동선도 짜고 그래서 나오는 게 어떤 결과물이고 그게 의원님들한테 적용이 됐을 때 나오는 게 우리구의 정책인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렵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딱 어떻게 하자, 라고 하기가 진짜 애매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무조건 해? 말아? 이거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조건부 승인 말씀하셨는데 조건부 승인은 말씀하셨지만 계획은 변경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회의록에 조건부 승인 요지를 달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이런 걸 받아서 다시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

○위원장 안종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수정된 걸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먼저 선택하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금희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안종태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씩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된 거를 다시 심의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거수로 하죠.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심의를 다시 하자, 라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승우위원

꼭 모이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죠? 요새는 온라인도 많고 그러니까 메일로 받으시거나 문자로 받으신 다음에 그냥 체크해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시간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안종태

그러면 수정된 걸 그냥 메일로 받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인해서 넘기는 걸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어떻게 그거 괜찮습니까?

○원금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다수결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안종태

지금 얘기는 조건부 승인은 여기에서 바로 사인하고 조건을 써놓고 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전체 그러니까 다시 받아가지고 승인을 할 것이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수정 제안을 하신 것이 받아서 사인해서 보낸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똑같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조건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한 것을 메일로라도 받아서 사인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두 가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조건부로 승인하고자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저도 조건부로 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건부로 하되 여기다가 쓰면 되잖아요. 회의록에다가. 회의록에다가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수정한 것은 조건부가 여기가 됐으니까 메일로라도 아니면 저걸로라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미 조건부 승인으로 됐으니까 조건부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위원장님! 근데 의결을 하려면은 2/3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승인이. 지금 5명…

○위원장 안종태

다시 한 번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전체 수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메일로 받아서 심의하는 방법 하나 하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수정된 거를 메일로 받아서 심의를 해서 보낸다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거수표결)

네, 세 분.

다음에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4대3으로 조건부가 돼 있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부결입니다.

○위원장 안종태

아, 그래요?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이렇게 되면 그냥 이메일로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사실 대면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좀 보완해서 서면으로 하는 거를 좀…

○윤수찬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부결이 됐으니까 이번 주 안에 다시 계획안을 세워서 지금 내용을 첨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메일로 해서 승인받는 걸로 하시죠. 이게 부결이 되면은 다시 계속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서면으로 개최해서 서면으로 사인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태

그러면 오늘 심의 결과는 메일로 다시 수정해서 이번 주 내로 보내면 거기에서 사인을 해서 보내는 걸로 심의는 거기에서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

위원장님, 이번주는 내일밖에 없는데.

○위원장 안종태

그런가? 그러네. 시간이 왜냐하면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주 중반 넘어가면 지금 10월달 되면 그렇죠?

○윤수찬위원

일정이 의원님들이 기관을 왜 한 군데밖에 안 가느냐 하는데 공공기관의 방문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나 기관방문은 국내 같으면…

○사무국장 김안순

사무국장입니다.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인데요. 수요일부터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사실은 16일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토·일이 안 된다는 것을, 일요일도 섭외를 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토·일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주시면, 그리고 가는 날과 오는 날은 방문이 쉽지 않고 해서 5박 6일이지만 실제적으로 방문 네 곳이면 물론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관방문이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종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요.

○사무국장 김안순

회기라든지 감안해서 일정을, 방문하실 수 있는 일정을 계획하다 보니 이런 사항이거든요. 어렵게 의원님들 모시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알차게 계획을 세우고

한 건데요. 윤수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방문을 여러 군데 했다가 캔슬되고 이러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2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다른 기관 섭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저희가 기관 방문이 있고 사실 현장 시찰이라고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처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갔다 오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기관 방문으로 해서 1회라고 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지만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현장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해서 최대한 빨리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도 지금 일정이 좀 그렇다 보니까 우선 조건부 방문으로 하되 저희가 조속하게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릴까 하는데 어떠신지 건의드립니다.

○윤수찬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조건부 승인을 팀장님이 요구하는데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조건부 승인으로 하는 걸로 동의할까요? 일정을 부족한 부분을 오전 오후에…

○송치경위원

의회 회의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계획서랑 주민이 봤을 때 이건 너무 부실하다, 세세하게 조금 더 넣어지면, 어쨌든 가실 거니까 그런 게 더 첨부되면 저희가 심의가 훨씬 하기 쉽다.

○위원장 안종태

그러면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합니까?

(「네.」)

또 있으십니까?

○송치경위원

위원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부결돼서 일단 첨가해서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서 저희가 확인하고 심의하는 걸로 하는 거는 결정이 된 거죠?

○사무국장 김안순

저희가 메일로, 찾아 뵙고 서명을 받겠습니다.

○송치경위원

그거는 결정이 된 거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잖아요.

○김지숙위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심의 열었으니까 통과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의견이 분분하신 거잖아요. 저는 위원장님, 저희 마음은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 가는 저도 찬

성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했을 때도 힘들고 저희 2시간 3시간씩 회의했거든요. 그럴 때도 저희는 다 찬성했어요. 가시길 원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하고 또 모이자는 것도 아니고 하셨으니까 처음 의견대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하고 다음 메일로 왔을 때 다 “O”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O”하고 다시 보내면 하는 걸로. 여기 우리 직원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처음에 나왔던 의견대로 그냥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히 쓰셔서 그냥 다시 하시는 게 저는 위원장님, 처음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위원장 안종태

제가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추석 전이고 토요일, 일요일 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김지숙위원

맞는데 저는 사실 2년 동안 이 심의하면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직을 맡아서 왔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왔거든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구에 의정에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시민단체의 몫으로 오긴 했지만 저는 행정에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회의록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시민단체에 계신 시민의 그런 분들이 눈동자가 아주 불 키듯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심의 위원들도 저희들도 엄청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의견도 물론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냥 원안대로 처음에 했던 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종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가 있냐 하면 원안대로 했는데 저쪽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저걸 보냈어요. 메일로. 그런데 ‘나 이거 저거 못해’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조건부를 제가 제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그게 나오는 거니까 조건부니까 승인이 되면 그런데 그때에는 못 보고서 저걸 하는 거니까 사인을 할 때 “나 안 해, X”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부로 이렇게 하고 어차피 그때 가서 사인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건부로 하고 저걸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안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보완을, 재보완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서명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종태

맞아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조건부로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안종태	김유권	김지숙	송치경
원금희	윤수찬	이승우	